

# 한국어 애칭의 한 형태에 관한 조사

위 효 준\*

## 1. 서론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이 만나고 인연을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식하며 구분하고 부를 필요성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다. 즉 호칭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호칭은 개인과 개인이 가진 관계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평범하게 성과 이름을 모두 부르기도 하고, 성이나 이름을 직위 등과 조합하여 부르기도 한다. 관계에 따라서는 강아지나 예쁜이 등 다른 대상에 비유해서 부르기도 하며, 동년배의 친구 사이에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별명으로 서로를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 가운데서도 대상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며, 그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이름을 변형하거나 축약하여 부르는 특수한 호칭이 바로 '애칭'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외국의 문화나 풍습을 다룬 대중문화 등이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줄여 애칭으로 칭하는 모습은 한국인에게도 익숙해졌다. 설사 애칭이라는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일지라도 대체로 그것이 별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어에는 그런 이름 축약 애칭이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애칭은 지역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 중에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서도 특히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화자와 친근하면서도 화자보다는 어린 대상의 이름 마지막 글자만을 따와 호격조사와 결합하여 부르는 '이름 축약 애칭' 이 널리 퍼져있다.

여태껏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름 축약 애칭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애칭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일상적으로 애칭을 사용해온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당연하며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라 생각하여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sup>1)</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여태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던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이 가진 생성 과정에서의 규칙과 그 특징에 관해 부족하나마 분석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 II. 이름 축약 애칭의 일반적 특징.

전술하였다시피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이름의 마지막 음절에 호격조사 -아/야를 덧붙인 형태로 구성된다. 이런 이름 축약 애칭은 지역에 따라 사용빈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이 경상도 출신인 경우라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애칭으로 부르는 것을 쉽게 들어왔기에 익숙하게 마련이다. 반면 제주도나 전라도의 경우 해당 애칭이 낯설 수 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직업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닌 한 도선사는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호칭인데, 부산에 와보니 다들 쓰고 있더라는 식으로 응답하기도 했다.<sup>2)</sup>

1) 이는 어떤 면에서 방언 화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방언의 일부 어휘 또는 현상에 대해 가지는 현상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2) 경상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형태의 이름 축약 애칭이 사용되는 지방으로 추측되는 곳으로는 충청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분한 사례 조사가 뒷받침되지는 않았으나 충청도 출신 거주자 중 2명이 이러한 형태의 애칭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두 제보자의 부모님들은 이북 출신으로 일찍 돌아가신 한 분을 제외하면 모두 충청도 출신이었다.

## 1. 일반적인 별명과 이름 축약 애칭의 비교.

애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대상과 화자는 매우 친밀한 사이여야 한다. 특히 애칭을 사용하는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애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가정 내에서 편하게 부르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또한 대상은 화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기껏해야 동년배 정도여야만 한다. 자신보다 높은 대상은 아무리 화자와 친한 사이일지라도(예컨대 부모님)<sup>3)</sup> 애칭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친밀도와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이름 축약 애칭 또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별명인 한 형태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름 축약 애칭은 여타 별명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대상의 여러 특성과 전혀 무관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정 개인에게 별명이 붙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외모상의 특징이 있다. 해당자가 어떤 동물이나 사물, 유명 인사를 닮았다거나,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해서 별명이 붙는 경우다. 살이 찢다고 돼지, 코가 빨개서 딸기코, 유명 스포츠 스타를 닮아서 야오밍 같은 별명이 붙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름 축약 애칭이 이러한 별명과는 전혀 다른 구성 원리를 지닌다. 효준이라는 이름을 지

3) 단, 그 대상보다도 높은 사람이 대상을 애칭으로 자주 칭하는 경우에 한해 무의식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대상이라도 애칭을 활용하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삼촌을 부모님이나 조부모 세대가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잦아 그에 익숙하다면 애칭+삼촌의 형태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형이나 누나도 마찬가지다. 일부 사례에서는 그런 애칭이 익숙하다보니 애칭 자체가 이름인 줄 알았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2.2.1.에서 잠깐 다루고자 한다.

닌 대상이 살이 찼다고 해서 준아, 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지 않게 된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름 축약 애칭은 대상의 이름과 애칭만을 놓고 봐도 직관적으로 왜 그런 애칭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대상의 특성에서 기인한 별명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외모에서 기인한 별명이라면 대상을 직접 봐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별명 가운데는 특정 사건이나 발언, 경향에 따라 붙는 별명도 있다. 말을 너무 더듬어서 더듬이 같은 별명이 붙는 사례가 있다. 화자의 특이한 말실수 혹은 언어 습관이 그대로 별명으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지인 가운데서는 고등학교 시절 남들이 잘 모르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남들에게 끈질기게 추천하고 다닌 바람에 해당 강의의 이름인 '타이거'가 별명으로 정착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 역시 개인의 특징과 연관된 별명이라는 점에서 외모 별명과 함께 다룰 수 있으며, 이름 축약 애칭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역시나 이런 별명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왜 대상에게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되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외모에서 기인한 별명과도 달리, 대상을 직접 보게 되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sup>4)</sup>

또 다른 사례로는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별명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 효준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하여 '효리' (유명인의 이름과 공통 음절이 있다는 점에 착안)가 별명으로 붙거나 한 층 더 나아가 '효리 포터' 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한 별명의 경우 대상의 특성과 무관하며 대상의 이름만 알아도

4) 한편 별명은 대상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일지라도 별명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애칭과 별명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학생 등의 집단이 자신의 담임 선생님에게 자기들만의 별명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있다.(즉 별명이지만 은어의 자격을 갖춘 사례라 볼 수 있다.) 외모에서 기인하여 배가 나왔으니 ET, 성격에서 기인하여 미친개, 혹은 사용 도구 등의 일화에서 치토스(치토스 과자처럼 생긴 몽둥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별명이 붙는 사례들이 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별명들에 비해 이름 축약 애칭과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별명과 애칭의 차이는 그것이 통용되는 범위에 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집단에 효리란 별명을 지닌 효준이란 인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B집단의 효준이란 동명의 인물도 효리라는 별명을 지녔으리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별명의 생성과 통용은 집단과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A집단의 효준과 B집단의 효준의 애칭이 (이름 축약 애칭이 통용되는 지역 혹은 구성체라고 가정했을 경우) '준야'가 되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측 가능하다. 또한 A집단에 효리라는 별명을 지닌 효준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C집단의 효선이란 인물이 있다고 해서 그 인물의 별명이 효리일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애칭의 영역에서는 성준이란 이름의 인물이 D집단 내에서도 A집단의 효준처럼 '준야'란 애칭을 지니리란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름 축약 애칭은 발음에서 기인한 별명에 비해 규칙적이며 객관적인 체계를 지녔다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이름 축약 애칭은 특성에서 기인한 별명과는 달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발음에서 기인한 별명보다 규칙적이며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할 수 있다.

## 2. 다른 언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의 비교.

문화의 개방과 외국어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는 외국인의 이름이나 애칭에 비교적 익숙해졌다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름 축약 애칭에 익숙했던 사람은 그러한 애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며, 반대로 별명은 익숙하지만 이름 축약 애칭에는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러한 애칭이 자못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다른 언어의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는 비교적 익숙한 언어라 할 수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을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 비교.

영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기본적으로 강세가 주어진 하나의 음절을 어기로 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에 애칭어미 *-ie*나 *-y*를 덧붙여 형성된다.<sup>5)</sup> 이에 따라 영어의 애칭은 그 이름의 강세 위치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Elizabeth라는 이름이 있다면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Elie, Lisa, Beth 등의 다양한 애칭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이 길고 강세의 포인트가 많은 경우 한 이름에 두 가지 이상의 애칭이 따라붙을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이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애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Elizabeth가 Beth가 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William이 Bill이 된다거나 Robert가 Bob이 되는 관습은 낯설게 느껴지기 쉽다.<sup>6)</sup>

이에 비해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기존의 이름에 포함된 음절 자체를 활용한다. 따라서 관습적으로 형성되는 영어의 애칭과는 달리 규칙만 알고 있다면 애칭과 이름을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다.<sup>7)</sup> 또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애칭이 형성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활용형은 한 이름 당 하나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영어의 이름 축약 애칭이 음절 + 애칭어미 = 애칭 명사의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어의 이름

5) 김현대(2003 : 3-7), 〈영어 애칭 명사의 최적성 이론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6) 이상의 사례는 <http://usgenweb.org/research/nicknames.shtml>에 정리된 것을 참조로 했다.

7) 반대로 영어의 애칭과는 달리 '애칭만 듣고서' 이름을 추정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있다.

축약 애칭은 기본적으로 음절 + 호격조사 = 호격의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영어의 애칭은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어 소유격(Lisa's Room)이나 지칭(Who is Lisa?)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반면, 한국어의 애칭은 명사 + 호격조사로 인식되기에 소유격 조사 등을 덧붙여 재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지닌 것처럼 보인다. (??준아의 방, ?준아 방)

그런데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 가운데서도 -아가 붙은 형태는 비교적 이러한 재활용이 자유로워 보인다.

- 1) A : 지금 들어온 게 누구야? / B : 호아가 왔네요.  
 2) A : 이 떡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나? / B : 그 떡 호야 것이예요.

1)과 2)에서처럼 -아가 붙은 애칭은 지칭이나 (소유격 조사가 생략된) 소유격으로 재활용되어도 딱히 어색하지 않다. (단, 일반적으로 '호야' 라는 말 자체는 호격의 느낌이 강한 것은 틀림없다.)

반면 -아가 붙은 애칭은 그대로 재활용하기에는 어색하지만, -아를 -이로 치환하면 같은 방식의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 3) A : 지금 들어온 게 누구야? / B : 준이가 왔네요. (?준아가 왔네요.)  
 4) A : 이 떡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나? / B : 그 떡 준이 것(??준아 것)이예요.

또한 -아가 결합된 애칭은 -아가 결합된 애칭과 달리 그 자체로도 명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격으로 쓰일 때 호격조사 -아가 한 번 더 붙은 형태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준아 -) 준아아) 이에 관해 '준아'의 '아'가 같은 발음의 '아(兒)'로 여겨져 호격이 명사로 취급되어 다시 한번 호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다.<sup>8)</sup> 그런데 이 논의를 수용할 경우, 3)과 4)에서 '준아'가 그 자체로 활용되지 않고 -이의 형태로 치환되었을 때만 명사의 자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창섭 교수의 지적.

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아(兒)’ 이론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야 형 애칭에서는 아(兒)가 생략된 것으로 여겨지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 3)이나 4)같은 사례에서는 -아가 아(兒)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름 축약 애칭이 재활용되는 경우에 있어 친족 관계 명칭과의 결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름 축약 애칭들은 앞서 언급한 명사로 재활용되는 형태 그대로 친족 관계 명칭과도 결합할 수 있다.

- 5-1) 태호 → 호야 → 호야 오빠, 호야 형.  
 5-2) 회주 → 주야 → 주야 언니, 주야 누나.  
 5-2) 강산 → 산야 → 산야 오빠, 산야 형.  
 5-4) 효준 → 준야 → 준야 오빠, 준야 형.

이처럼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 또한 다른 조사와 결합함으로써 영어의 애칭처럼 소유격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며, 지칭으로써의 성격도 지니게 될 수 있다. 이중 지칭으로써의 성격에 관해서는 2.3.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sup>9)</sup>

## (2) 일본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 비교.

일본어 이름 축약 애칭은 두 mora로 이루어진 하나의 음보가 운율 형판을 이루며 이 운율 형판에 애칭어미 ‘-ちゃん(tyan)’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sup>10)</sup> 일본어 애칭 역시 기본적으로 이름의 일부 + 접미사

9) 2.2.1에서 논의된 요지에 관해, 미경 → 경아 → 경아 것, 경아 방, 경아 누나, 경아 언니 (\*경이 방, ?경이 누나) 식의 반례가 제시되었다. 이를 대상의 성별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정숙 → 숙아 → 숙이 것, 숙이 방, 숙이 누나, 숙이 언니의 사례나 5-2)의 사례와 충돌하고 만다. 그렇기에 현재 단계에서는 뭐라 논하기에 부족한 반례임을 밝히며, 이에 관한 충분한 사례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임을 시인한다.

10) 최경애(1996), <애칭 형성과 운율 형판의 역할에 대한 소고>, <<어문

가 붙어 명사로써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는 점은 영어 애칭과 공통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호칭으로써의 성격과 지칭으로써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을 호칭할 때 XXちゃん이라고 발화하면 그 발화는 호격이 되지만, XXちゃんのもの(XX의 것) 식으로 지칭으로 쓰어도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어 애칭의 형성 과정과 일본어 애칭의 형성 과정을 비교하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같은 이름 구조(한자 구성)를 지닌 대상의 애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부분이 전혀 판이하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자	국적	발음	애칭	비고
景子	일본	Keiko(케이코)	Keityan 혹은 Kettyan 등	Kotyan 류는 불가.
	한국	Kyeongja(경자)	Jaya(자야)	경아는 불가.
風子	일본	Fuuko(후우코)	Fuutyman 혹은 Futtyan 등	Kotyan 류는 불가.
	한국	Pungja(풍자)	Jaya(자야)	풍아는 불가.

표1). 景子和 風子の 한일 양국에서의 애칭

보다시피 같은 한자로 이루어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애칭을 구성할 때는 결코 선택되지 않는 부분만이 한국어 애칭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인명을 구성하는 ‘子’라는 부분은 양 국에서 모두 자체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고, 흔히 쓰이는 이름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명칭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 애칭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Kotyan류가 선택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왜 이 두 여성의 애칭이 같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도 '자야' 만이 선택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저 '자' 가 이름의 마지막 음절이기 때문이다. 즉 2.2.1의 강세와 함께 생각해보자면, 적어도 한국어에 있어서 이름 축약 애칭을 구성하는 데는 강세의 유무나 고유한 의미 등이, 마지막 음절이라는 특색보다 하위에 놓이는 요소이거나, 혹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X자 류의 이름이 흔했던 시절을 살았던 제보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자야!' 하고 부르는 말에 한 반에서도 4~5명이 한꺼번에 뒤돌아보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개개인의 구별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들이 애칭을 사용함에 있어 구분의 기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3.3.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표1)에서 다루어지는 景子와 風子の 애칭은, 적어도 이 두 명이 한 가족(자매)이나 매우 가까워 매일 얼굴을 마주보는 친척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이 전제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 두명에게 '자야' 라는 애칭이 붙지 않았을 것이다.<sup>11)12)</sup>

11)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景子が 風子보다 일찍 태어난 언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風子が 태어나기도 전부터 景子를 계속해서 자야라고 불렀다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졌을 경우, 風子が 태어났다 하더라도 景子만을 계속해서 자야라는 애칭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경우에 風子は 자야라는 애칭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한 제보자 가운데서도 '윤대인' 과 '윤세인' 형제에게서 이런 현상이 관찰되었다.

12) 이 경우라고 해도 일본어처럼 마지막 음절이 아닌 '경야' 나 '풍야' 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애칭의 구성 조건에는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애칭 없이 '경자야', '풍자야' 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 단, 경! 풍! 식으로 둘을 구분하여 부르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지칭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어 어디까지나 호칭으로써만 사용되게 된다.

### (3) 중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 비교.

중국어를 이름 축약 애칭과 가장 유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은 ‘小+성’으로 구성되는 애칭일 것이다.<sup>13)</sup> 다른 언어에서의 애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호칭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며 ‘小李의XX’ 식으로 소유격이나 지칭으로 쓰일 수도 있다.

중국어 애칭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대상이 화자에 비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의 여부를 애칭만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小/老의 구분을 통해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어림짐작해 볼 수 있다.<sup>14)</sup> 이 점에서는 한국어 애칭인 ‘아/야’ 형태 역시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화자의 연령대와 동등하거나 이하라고 추측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애칭의 경우 2.2.1.의 말미에서 다루었다시피 친족 명칭과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대상이 화자보다 어느 정도(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윗사람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준이 오빠’, ‘숙이 언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3. 이름 축약 애칭의 지칭으로써의 면모.

앞서 살펴본 다른 언어의 이름 축약 애칭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애칭은 대상자에게 직접 발화하는 호칭으로써의 성격과, 대상의 소유물을 설명할 때 쓰이는 식으로 지칭으로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

13)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동년배끼리 小(xiao)+이름의 마지막 글자 식의 애칭을 사용한다는 정보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기에 다루지 않았다. 만약 일부 방언권에서라도 저러한 애칭 형식이 널리 사용된다면 이는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 비교해볼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별개로 중국 가정에서는 이름의 마지막 글자만을 반복하는 애칭을 부르기도 한다. ‘장장’, ‘웨이웨이’ 같은 애칭이다.

14) 老의 경우 老+성보다는 성+老師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애칭이라기보다는 존칭에 가깝기에 이 논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애칭의 경우는 어떨까? 2.2.1.에서 간략하게 다루긴 했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 지칭으로 사용될 때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2)를 통해 정리해보자.

이름	국적	애칭	소유격	종자명
Elizabeth	미국	Beth 등	Beth's Book	Beth's Mom
風子	일본	Fuutyan 등	Fuutyanの本	Fuutyanの かあちゃん
李元張	중국	小李(Xiao Li)	小李的冊	小李的媽媽
위효준	한국	준아(Juna)	준이 책	준이 엄마

표2). 4개국의 애칭 비교.

이 네 가지 표현을 비교해보면, 한국어 애칭이 소유격 지칭으로 쓰일 때 가장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정도의 사이에서라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 3자의 소유물에 대해 청자에게 “아, 이 책은 베스의 책(Beth's book)이네.” 라는 표현과(혹은 Fuutyanの本) “아 이 책은 준이 책이네.” 라는 표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 그렇다면 한국어 이름 축약 애칭에는 지칭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애칭이 지칭으로 쓰이는 또 다른 사례인 종자명을 살펴보자. 종자명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개인의 자식의 이름을 이용해 개인을 호칭하는 명사다. ‘덕혜 엄마’ 같은 표현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름 축약 애칭을 쓰는 지역에서는 종자명의 근간에 애칭을 넣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부 사이라면 그들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자식의 이름을 활용해 ‘준이 아빠’, ‘준이 엄마’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매우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같은 활용이 가능할뿐더러, 심지어 대상이 매우 어린 아이이며 화자가 대상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

을 경우(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 등)에는 대상의 부모를 애칭을 활용한 종자명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대상의 애칭이 그대로 지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6) 어머. 준이 어머님 오셨네요. 오늘 준이가 참 착하게 친구들과 놀았어요.

이처럼 한국어 이름 축약 애칭은 지칭으로 쓰일 때는 상당히 독특한 활용을 보여준다. 특히 종자명의 대상이 제 3자일 때가 아니라 직접적인 청자일 때도 제한적이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지칭으로써의 성격을 고찰할 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 III. 이름 축약 애칭 생성에서의 간섭현상.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전술하였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름의 가장 끝 음절에 호격조사 -아/야를 결합하여 생성된다. 그러나 모든 이름의 끝 음절 + 호격조사의 형태가 애칭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화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분명히 내재적으로 애칭 생성에 관여하는 간섭조건들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조건을 화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맞게 정리하여, 크게 음운, 의미, 환경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 1. 음운 측면에서의 간섭

애칭 생성에 가장 먼저 간섭하는 요인은 그 이름의 마지막 음절의 음운 성격이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많은 사용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곤 하는데, 대체적으로 “발음하기 좋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름”이라는 내재적 규칙을 가지고 이를 판단한다. 특히 일부 발화자는 ‘이름 전체를 부르는 것’과 ‘끝 글자만 부르는 것’ 중 발음하기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대개의 제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현상에 관해 ‘받침이 있으면 끝 글자를 따고, 아닐 경우 따지 않는다고’ 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대개 애칭으로 널리 불리는 이름이 ‘준, 숙, 덕’ 처럼 받침을 지닌 음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덕’ 같은 경우에는 ‘정귀덕’ 이란 여인의 인생 역정을 그려내면서 제목을 애칭인 〈덕이〉로 설정한 드라마가 2000년 SBS에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익숙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야’ 나 ‘호야’ 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받침의 유무 자체가 애칭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특히 30~40대 이상의 경우 받침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대답하다가도, 어릴 적 ‘자야’ 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예외로 취급하거나 정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대체로 받침이 없는 이름 끝 음절은 그 음절의 중성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수, 호, 자’ 등의 단모음을 포함한 음절은 ‘규, 재, 너, 화’ 등의 이중모음을 포함한 음절에 비해 이 애칭을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발음하기 쉽고, 예쁜’ 음절로 여겨진다. 이는 곧 애칭의 생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기’ 같은 이름의 경우 단모음일지라도 애칭으로 부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화자가 많은데, 이는 1모음 + 호격조사 -아/야가 이중모음만큼이나 발음하기에 ‘예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받침이 있는 음절의 경우, ㄱ받침을 가진 ‘덕, 숙, 익, 혁’ 등은 많은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애칭으로 부르기 좋은’ 음절으로 꼽힌다. 단모음에 ㄴ받침을 지닌 ‘빈, 선, 원, 인, 준, 진, 한’ 등이나 ‘찰’ 처럼 단모음에 ㄹ받침이 결합된 음절은 상당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애칭의 구성 요소로 꼽혔다. 반면 ‘원, 현, 연, 열, 울’ 같이 이중모음에 ㄴ, ㄹ받침이 결합된 음절은 화자마다 상당히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받침이 없이는 이름에 오기가 힘든 ㅡ모음의 경우 ‘은’ 음절을 통해 이름에 쓰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화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sup>15)</sup> 이같은 결과를 볼 때, 애칭 형성은 앞서

언급했던 모음의 종류에 따른 판단 기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 중, 상, 영' 같은 ㅇ받침 이름의 경우에도 화자에 따라 선호도가 같았는데, 이는 받침을 다음에 이어지는 음절인 호격조사의 초성으로 자연스레 연결하여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다른 받침에 비해, 호격조사의 초성과 이름 끝 글자의 종성을 확실히 구분 해주어야 하는 ㅇ받침의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2. 의미 측면에서의 간섭

하지만 음운 간섭만으로 애칭 형성의 규칙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애칭을 생성하는 데 있어 그 음절의 의미 역시 음운만큼이나 크게 간섭하기 때문이다.

우선 음절 자체가 분리되어 호격조사와 결합하였을 때, 동음이의의 다른 단어를 연상시키는 음절의 경우 애칭으로 불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가장 대표적인 음절로는 '돈, 문, 우, 아, 애, 형' 등이 있다. 이를 다른 애칭처럼 호격조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 '돈(豚)아, 문(門)아, 우(牛)야, 아(兒)야, 애(兒의 방언)야, 형(兄)아' 등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애칭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음절이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애칭으로 불리지 않는다.

한 가지 특이한 사례라면 '회'를 들 수 있다. '회야' 같은 경우 여성의 애칭으로 쓰였을 때 비교적 '예쁜' 느낌을 주는 편이기에 음운 측면에서의 간섭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회야'가 '형(兄)'을 뜻하는 방언권의 화자들은 이 애칭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즉 '회야'는 특정

15) 그러나 '은'의 경우 음운 측면에서의 간섭인지, 그렇지 않으면 3.2.에서 다루게 될 의미 측면에서의 간섭으로 인한(銀) 것인지는 쉽게 관정할 수 없다. 이를 보충해줄 수 있는 이름 음절로는 '혼' 정도가 있으나 이름에 자주 쓰이는 음절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밀한 조사를 거친 표본의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언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측면의 간섭을 받아 애칭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음절 고유의 의미와는 별개로, 마지막 음절만을 떼어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도 있다. 즉 애칭 형성 이전에 성립해야 할 분리 과정에 대한 간섭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순우리말 이름이나 이름과 성이 결합되어 고유한 뜻을 이루는 이름에(예를 들어 ‘이로운’) 대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늘봄, 우리, 하늘, 초록, 샘물’ 같은 이름이 그러하다.<sup>16)</sup> 다만 이들의 경우 음절을 분리하였을 때 의미의 훼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떼어낸 음절로 만든 애칭 자체가 3.1.의 음운 측면에서의 간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몬, 심온, 요한’ 처럼 중의적 의미나 종교적 의미를 고려하여 지어진 이름 역시 분리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 애칭으로 불리지 않게 된다.<sup>17)</sup>

### 3. 환경 측면에서의 간섭

애칭의 음운적 느낌이나 의미의 간섭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애칭이 무조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애칭의 경우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애칭을 지닐 수 있는 영어나 일본어 이름과는 달리, 활용형이 제한되어 있기에 애칭이 구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면 아예 애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16) 또 다른 견해로 이름 자체가 애칭 못지않게 ‘예쁘기에’ 별도의 애칭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화자와 대상의 친근감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애칭의 기능을 생각해보다면 유일한 이유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17) 일반적으로 높은 확률로 애칭으로 불리는 ‘준’ 조차도 이름 자체가 준말로써 의미를 지니는 ‘예준(예수님이 준 아이)’ 같은 경우 애칭 형성 확률이 낮아진다. 비슷한 사례로 ‘하선(하느님의 선물)’의 ‘선’이 있다. 이는 종교인 가정에서 비교적 흔한 이름이니 만큼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면 의미 있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름의 마지막 글자로 같은 향렬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돌림자가 사용된 경우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름	성별	서열	애칭
위향숙	여	1	숙아
위인기	남	2	X
위오기	남	3	X
위물기	남	4	X

표3). 돌림자를 사용하는 위 씨 집안의 형제 간 애칭 사용 여부.

표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일지라도 돌림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 애칭의 사용 여부가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돌림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림자가 애칭이 되면 같은 향렬의 타인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애칭으로써 부적합하다.

다만 돌림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애칭이 사용되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해당 향렬에서는 공유되는 돌림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나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척 가운데 해당자가 없을 경우 가족 내에서는 애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애칭은 설사 같은 돌림자를 공유하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해당 가족은 무의

18) 대상자의 성별이나 서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점은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름	성별	서열	애칭
김현우	남	1	X
김유정	여	2	X
김강산	남	3	산아

표3)의 가족과는 반대로 가장 막내인 남성만이 애칭으로 불린다. 반면 자식이 있는 체보자의 경우 '왠지 첫째는 잘 불러도 둘째는 잘 안 부르게 되더라' 라는 느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표본의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의 김현우, 김유정, 김강산 남매의 경우 막내인 김강산이 첫째와 둘째에 비해 10살 가까이 차이는 환경이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적으로 애칭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친척들은 그 대상을 애칭으로 부르진 않을 것이다.

또한 상기한 조건에서 뒤늦게 같은 향렬의 동생이 태어난다 해도 이미 애칭의 지위가 선점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만이만이 애칭으로 불릴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름	거주지	연령	애칭	비고
윤대인	모라	30	인아	윤세인의 형
윤세인	모라	26	X	윤대인의 동생
윤정인	영도	30	인아	외동아들

표4). 돌림자를 사용하는 윤 씨 집안 남성들 애칭 사용 여부.

표4의 인물 중 윤정인은 첫 번째 조건인 '가족이나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척 가운데 해당자가 없으므로 돌림자가 애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윤대인의 경우 윤세인의 출생 이전까지는 윤정인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에 부합했지만, 윤세인의 출생 이후 첫 번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두 번째 조건인 애칭의 선점 효과로 인해 계속 애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다. 오직 윤세인만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못하므로 동년배의 형제 가운데 홀로 애칭으로 불린 경험이 없다.

한편 대상의 성별 역시 애칭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영' 같은 경우 남성 이름에서 쓰일 때보다 여성 이름으로 쓰일 경우에 애칭으로 불릴 확률이 높다. 이는 3.1.에서 다룬 음운 상의 느낌과 3.3.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수'는 여성 이름보다 남성 이름일 때 애칭으로 불릴 것 같다는 제보자들의 평가가 있었다.<sup>19)</sup>

19) 다만 제보자의 연배에 따라서는 과거의 형제 그룹 '수와 진'에서 영향을 받고 대답했을 확률도 존재한다. 이처럼 대중문화의 영향력 역시 애칭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IV. 이름 축약 애칭의 생명력.

앞서 그 일반적 특징과 생성 과정에서의 규칙에 대해 알아본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의 경우, 지금까지도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젊은 세대 화자들의 경우 부모님이 부르는 애칭은 들었으나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 부른 적은 없다는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경우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응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름 축약 애칭이 현대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지닌 생명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사용 범위의 축소 경향에 관해.

이름 축약 애칭에 관해 음절 위주로 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제보자의 연령대에 따라 '애칭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음절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화자의 연령대와 허용 범위가 비례한다고 봐도 좋은데, 70대 이상의 노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음절이 애칭으로 불렸다고 기억하며 진술하는 반면 20대의 제보자는 70대는 물론이요 40대가 긍정하는 '자야' 등의 음절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이름 축약 애칭이 점차 소멸하고 있다는 근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논지를 꺼낼 수도 있다. 첫째로 이름에 있어 해당 음절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단적으로 말해 이름이 '자'로 끝나는 경우는 최근에는 매우 드물어졌다. 본래 이런 이름들은 여성의 이름을 중요시하지 않던 시절의 흔적으로 'X자', 'X월' 식으로 널리 지어지던 이름들이다. 그러던 것이 현대로 접어들며 '뜻이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책도 뒤지고 작명소를 찾기도 하는 식으로 발전하면서 저런 음절로 끝나는

이름 자체가 드물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이름에서 유추되는 해당 애칭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색하게 느끼기 쉽다. 비슷한 세대의 이름에 널리 쓰이던 ‘닥’의 경우 드라마 제목을 통해 접하면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애칭을 들어본 빈도에 따라 애칭을 받아들이고 생산하는데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 집안에서 자란 비슷한 연령대의 형제가 자신이 애칭으로 불리며 성장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름 축약 애칭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름	연령	성별	애칭으로 불린 경험	유효 항목 수
위물기	56	남	X	20/56
윤정숙	53	여	O (숙아)	23/56
위효준	26	남	O (준아)	18/56
위지영	25	여	X	11/56

표5). 한 가정 내의 유효 애칭 항목 수 비교.

표 5)는 한 가족이 임의로 지정된 56개의 이름 형태에 대해 애칭으로 불려도 어색하지 않다고 응답한 항목 수를 정리한 것이다. 같은 연령대의 화자라도 애칭으로 불린 경험에 따라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수에 차이가 난다. 성별에 무관하게 애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는 화자는 없는 화자보다 애칭에 대해 수용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이름이 유추되는 애칭의 재생산에 대한 기피 현상을 들 수 있다. 대개의 응답자들은 부모님의 이름에서 유추되는 애칭은 들어 본 적이 많아 익숙하게는 여기지만, 같은 애칭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부자연스러워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선 권위의 상징이자 '나보다 높은 사람'의 대표적인 부모님의 이름이 '나보다 낮은 사람의 이름을 예쁘게 칭하는' 애칭과 연관될 경우 충돌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감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애칭 재생산의 최근 사례.

그렇다면 범위와는 별개로 이름 축약 애칭 그 자체의 생명력은 감소하고 있는가? 대개의 젊은 세대 제보자들의 경우 '들어왔고 익숙하지만, 내가 만들어 부른 적은 없다.'는 식으로 답한다. 실제로 동세대 형제나 친구, 친척 등을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 역시, 대상이 그 부모들에게서 그런 식으로 불리는 것을 들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애칭으로 부르게 된다 볼 수 있다. 예컨대 애칭 사용 지역에서 애칭 비사용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고 해도 그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해 별명을 사용할지는 모르나 대상에게 있어 낯설기 그지없는 애칭을 만들어 부를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름 축약 애칭은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그런데 당장 검색 사이트 등에서 애칭형인 '준아', '덕아' 등을 검색해보면 젊은 부모가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을 애칭으로 부르며 육아일기를 블로그 등지에 올린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보자 가운데서도 윤정인(30세)과 서희준(28세) 부부의 경우 둘다 애칭으로 불리며 자랐으며, 자식이 태어나자 '희생'을 '성아'로 자주 부른다고 응답했다.<sup>20)</sup>

다음 사례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 연재되는 웹툰 가운데 독자의 투고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만화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연이 아버지는 자기 딸 정연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앞으로는 친근함을 담아 '연아'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로 결심했다. 유명 선수 김연아가 연상되기도 해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날 정연이를 칭찬하거나 혼낼 때면 '착한 연이', '나쁜 연이'

20) 반면 둘째인 '서은'은 '은아'로 부르지 않는다고도 응답했다.

식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년)이 연상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애칭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sup>21)</sup>

해당 내용을 통해 애칭의 생산이 아직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의미 간섭으로 인해 애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역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화자가 애칭을 받아들였던 입장에서 생산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애칭의 선행조건이 ‘자신보다 낮으면서도’, ‘매우 친근하며 그 친근감을 드러내고 싶게 만드는’ 대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완벽하고 쉽게 만족하는 것이 자식이다. 결국 애칭 자체를 낮설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해당 화자가 애칭을 재생산하며 이어나갈지의 여부는 친자식이나 그에 가까운 존재<sup>22)</sup>를 접하고 나서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과 그 생성과정에서의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부 지방 화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이름 마지막 음절을 따와 그대로 호격 조사를 붙이는 형태로 사용된다. 다른 언어의 이름 축약 애칭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화자보다 낮은 사람이며 동시에 화자가 상대에게 강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호칭으로써의 기본적 성격 뿐 아니라 활용에 따라서는 지칭의 성격을 지니게 되기도 한다.

21) Naver 웹툰 <김양수의 카툰판타지 - 생활의 참견> 497화. <<애칭의 문체>> 편 참조.

22) 매일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운 조카를 예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 애칭을 사용하더라도 화자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는 형제에 해당할 조카의 부모가 먼저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애칭의 생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건인 화자와 상대의 연령차와 친밀도 여부 뿐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관여한다. 음절 자체의 음운적 속성과 결합 혹은 분해 과정에서의 의미상 간섭, 그리고 대상을 둘러싼 환경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애칭의 사용자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생산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생산 과정에는 내재적인 규칙이 뒷받침하는 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 생성의 체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양의 사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 직업군에 걸친 애칭 사용 여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음운, 의미 그리고 환경상 간섭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이름 축약 애칭은 사용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사용빈도 분포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를 통해 이름 축약 애칭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이유를 방언 혹은 역사적 환경을 통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름 축약 애칭의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최근 사례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알아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희선(2008), 〈일본어에서의 호칭 사용 연구 : 일본드라마를 통한 자칭사·대칭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대(2003), 〈영어 애칭 명사의 최적성 이론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훈(2007), 〈韓國語와 中國語의 呼稱語에 대한 對照 研究 : 非親族 呼稱語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최경애(1996), 〈애칭 형성과 운율 형식의 역할에 대한 소고〉, 〈〈어문학 연구〉〉 Vol.5 No.1.